

4주차

예언과 예언서

한 승 훈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근대 정감록과 조선후기 예언서들

- 정감록이라는 예언서
- 넓은 의미의 정감록과 좁은 의미의 정감록
- 여러 개의 정감록

02. 예언서의 형식들

- 편년형과 역년형 예언
- 예언서의 장르들
- 산수비기와 도선비기

03. 예언의 역사적 변형

- “초포에 조수가 들어오면”
-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 “성인이 나오고 즐거움이 당당할 것이다”
- “궁궁이 이롭다”

04. 예언서의 역사적 변용

- 도참비기는 금서였는가?
- 예언서에 대한 인식
- 기복, 호국, 혁세의 예언서

3차시

예언의 역사적 변형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후기에 유행한 예언들의 변형 사례들을 살펴본다.
- 예언이 반란에서 활용되던 방식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 “초포에 조수가 들어오면”
-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 “성인이 나오고 즐거움이 당당할 것이다”
- “궁궁이 이롭다”

“초포에 조수가 들어오면”

초포草浦에 조수潮水가 들어온다

“초계에 조수가 있으면 계룡에 도움을 세운다.
조선은 모두가 병거지와 갓옷을 입을 것이다.”

《柳孝立獄事文書》

유효립 사건(1628)	문인방 사건(1782)	이진채 사건(1812)
초계에 조수가 있으면 계룡에 도읍을 세운다.	초포에 조수가 생긴다. ... 계룡산 아래 초포가 있다.	계룡의 돌이 희어지고 초포에 조수가 생긴다.

초포 예언

- 17세기 즈음부터 독립적인 이야기로 전승
- 18세기 중반 이후 《정감록》에 삽입

**“안성과 죽산 사이,
인천과 부평 사이”**

“내년에 안(安), 죽(竹) 사이에
시체가 산처럼 쌓일 것이며,
성세(聖歲)에 인(仁), 부(富) 사이에는
밤에 천 척의 배가 머물 것이다.”

《乙亥 捕盜廳推案》



인천과 부평 사이

성스러운 해 聖歲

“예수가 경신년(1800)에 태어났는데
작년이 경신년이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해라고 불렀던 것이다.”

《辛酉 推案及鞫案》

성스러운 해 聖歲

“비기에 ‘성스러운 해’라는 말이 있던데,
‘성스러운 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올해는 성인께서 책봉을 받은 해이니
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罪人振采等推案》

안동으로의 천도

“천 척의 배가 인천과 부평 사이에 머무르면
국가가 안동으로 천도할 것이다”

《罪人振采等推案》

**“성인이 나오고
즐거움이 당당할 것이다”**

□□聖人出

□□樂堂堂

신돈은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辰巳聖人出]”는
예언을 두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른바 ‘성인’이란 것은 내가 아니겠느냐!”

《高麗史》

전 왕조 때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다.
“갑을(甲乙)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나,
인묘(寅卯)의 일은 알 수 있고,
진사(辰巳)에는 성인이 일어나며,
오미(午未)에는 즐거울 것이다.”

《中宗實錄》 중종 3년 11월 26일

“인묘성인출(寅卯聖人出)”

“사축허다인(巳丑許多人)”

“오미락당당(午未樂堂堂)”

《宋匡裕獄事文書》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오미락당당(午未樂堂堂)”

《李榮昌等推案》

“무진사가지(戊辰事可知)”

“경오락당당(庚午樂堂堂)”

《罪人之曙推案》

□□ 聖人出, □□ 樂堂堂

- 문자화된 예언서에 포함
- 성인 : 추대할 왕족,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진인)
- 락당당(樂堂堂) : 반란의 성공 암시

“궁궁이 이롭다”

궁궁弓弓

이재궁궁利在弓弓

弓弓, 弓乙

- 동학의 핵심 상징
- 근대 가사문학에 활용

- “이재송송(利在松松)” : 임진전쟁 예언
- “이재가가(利在家家)” : 홍경래의 난 예언
- “이재궁궁(利在弓弓)” : 다음에 올 말세의 전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궁궁이 이롭다
非山非水, 利於弓弓

《罪人之曙推案》

“궁궁(弓弓)은 ‘궁’ 소리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 소리가 나는 장소에 묻히려는 말이다.”

“궁궁은 광활하다는 뜻이다.”

“궁궁은 옛 글자로 ‘머물 류(留)’자이므로
산골짜기로 피하지 말고,
섬 안에 거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罪人之曙推案》

“궁궁(弓弓)은 이궁(二弓), 즉 아닐 불(弗)자다.”

《乙亥 捕盜廳推案》

“요즘 유행하는 말에
푸른 옷을 입은 이들이 남쪽에서 오는데,
왜와 비슷하지만 왜가 아니다.
산은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궁궁이 이롭다.”

《正祖實錄》 정조 11년 6월 14일



천도교 궁을기

“이필제의 필(弼)자를 궁궁(弓弓)이라 하였고,
이필제가 을유년(乙酉年) 생이라
을을(乙乙)이라 하였다.”

《左捕廳臚錄》

“손으로 땅에 궁궁(弓弓) 같은 모양을 그렸는데,
‘궁궁이 이롭다’는 말을 따른 것이다.”

《左捕廳臚錄》

弓弓, 弓乙

-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예언
- 기복 지향 : 재난 속에서 몸을 지키는 장소 찾기
- 구도 지향 : 동학에서 깨달음과 수행을 위한 상징

정리

- 예언은 특정 시기에 등장, 상황에 따라 변형, 활용
- 변란 참여자들은 예언 문구를 재해석

다음 차시에서는

- 예언서들이 변란에 활용된 방식

SOURCES

[출처01]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출처02] 천도교중앙본부

<http://www.chondogyo.or.kr/>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